

## 광주·전남, 최악 가뭄에 상수원 고갈 직전



▲ 계속된 가뭄으로 마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전남 나주시의 나주호 모습. 사진=매일경제

광주·전남 지역이 유례없는 가뭄에 신음하고 있다.

지난 4일 '기자협회보'가 국무조정실과 기상청 주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2022 이상기후 보고서'를 인용해 전남에 따르면 지난해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전국 평균 156.8일이었는데, 남부지방은 227.3일로 중부지방(81.7일)의 약 3배에 달했다. 특히 전남은 281.3일로 관측 이래 가장 기간 가뭄을 기록했다.

2022년 한해 광주·전남에 내린 비의 양은 854.5mm로 평년 대비 60.9%에 그쳤으며, 지역별 연강수량에서 전국 꼴찌였다. 4월 기준 광주지역 상수원인 동북댐 저수율은 18.45%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역시 광주·전남 지역의 주요 물 공급원인 주암댐의 저수율은 17%대까지 떨어졌다.

이대로 가뭄이 장기화하면 대도시인 광주에서도 30년 만에 제한 급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완도와 신안 등 전남 도서 지역에선 이미 지난해부터 2일 급수, 6일 단수 등의 제한 급수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봄철 영농기에 들어선 농가의 시름이 깊다. 가뭄이 지속되면 농사에 큰 지장을 초래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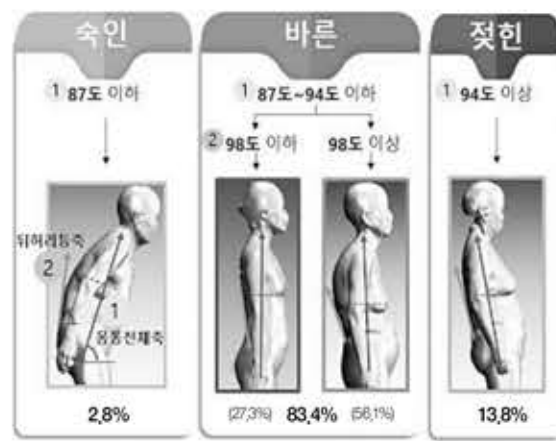
한편 3일~5일 광주·전남 지역에는 지역별로 약 30~120mm의 비가 내렸다. 임동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물운용총괄과장은 "비가 내렸지만 식수난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고령자 10명 중 8명은 '허리 꼳꼳'

'꼬부랑 노인'이란 말이 옛말이 됐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 열에 두 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날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사이즈코리아 성과 발표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고령자 인체치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6~12월 70~84세 고령 한국인 1천14명의 키, 몸무게, 다리·팔 길이, 허리둘레 등 360개 항목에 대해 직접 측정이거나 3차원 스캐너 등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고령 인구의 평균 키는 첫 조사가 이뤄진 2003년과 비교해 남성 2.9cm, 여성 2.7



▲ 남녀 고령자 체형분류. 그래픽=산업통상자원부

cm 커진 165.7cm, 152.1cm를 각각 기록했다.

같은 기간 평균 몸무게는 남성이 5.1kg 증가한 66.8kg, 여성이 1.0kg 증가한 56.7kg로 나타났다.

남녀 고령자 모두 체형의 변화도 확인됐다. 특히 허리가 굽지 않고 바로 선 이른바 바른 체형의 비율이 전체 조사 대상자의 83.4%로 역대 가장 높았다. 이어 몸통 전

체 축이 94도 이상인 젇힌 체형은 13.8%, 87도 이하인 숙인 체형이 2.8% 순이었다. 비만율의 경우 남성(38.3%)이 여성(42.2%)보다 낮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고령자에게 적합한 고령 친화 제품과 서비스 설계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삼성, 4조 투자해 OLED 생산 시설 조성

삼성이 정보기술(IT)용 최첨단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을 선점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 신규 투자를 단행한다.

지난 4일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날 충남 아산 제2캠퍼스에서 열린 신규 투자 협약식에서 아산·천안 지역에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구축해 세계 최초로 8.6세대 IT용 OLED를 생산한다고 밝혔다. 삼성을 이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총 4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태홍 충남도지사, 삼성디스플레이 주요 협력사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첨단 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고 기술 개발에 대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삼성은 2007년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용 OLED 양산에 성공한 후 OLED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1위 기업인 삼성은 이번 투자로 기존 IT용



▲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사진=삼성디스플레이

OLED의 유리 기판을 6세대급(1.5m×1.8m)에서 8.6세대급(2.25m×2.6m)으로 확대해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을 한 차원 더 도약 시킨다는 방침이다.

한국 정부도 삼성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OLED 생산기술 혁신과 응용제품 개발에 4,200억원 규모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약 9,000명의 선도 인력도 양성한다. 충청남도도와 아산시도 신속한 인허가 등 지원을 약속했다.

# Kyung Sook Yu, D.D.S

##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Free**  
임플란트 상담

**크라운 (PFM)**  
\$500

**잇몸치료**  
\$200부터

**틀니**  
\$1500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Imperial Hwy

S. Beach

● 유경숙 치과

에당식당